

압박·설득·회유... '캐스팅 보트' 與 비주류 잡기 전면전

3野-친박, 탄핵 가결 정족수 200석 확보·저지 전쟁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디데이(D-day)로 잡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하려는 야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 주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여권 비주류가 뒤엉켜 지파의 존망을 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야권 3당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주류는 각각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은 일단 무소속까지 포함, 최소한 172명의 찬성표가 확보됐다고 보고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8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진영에서 최소 35명의 찬성 의원이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지 장담할 수 없고, 참여한다 해도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반드시 던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안 찬성 표결을 독려하고 압박하는 데 진력하는 한편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비주류 의원들에 대한 각종 회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의 움직임에 맞서 새누리당 친박계도 비주류에 대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며 결사 항전에 나섰다.

전날 비주류 측에서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수용 입장 발표와는 별개로 탄핵 표결에 참여키로 방향을 정하자 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野 "부결엔 국민이 끌어낼 것"

새누리 '4월 퇴진' 수용 촉구

이정현 "청와대 받아들일 것"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론을 받아들여 내년 4월 퇴진한다면 탄핵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물밑으로 비박 진영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 일색의 당 지도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 당론'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는 당론으로 정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비주류의 탄핵 대안에도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에 따른 행보다.

이를 반영하듯, 비주류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노출되고 있다.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사국위원회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표결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온건 성향의 일부 비주류 의원은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탄핵 대신 자진 사퇴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흐릿한 청와대

미세먼지로 뿌연 날씨를 보인 5일 관광객들이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최근 시국과 관련 관심있는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선택... 즉각 퇴진이나 버티기나

오늘 4월 퇴진 의사 밝히고 현재 판결 등 반전 노릴 듯

야 3당과 여당 비주류 측이 오는 9일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세를 걸고 나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애초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보 문제를 국회로 떠넘겼지만 국민 반발로 탄핵에 대한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의지만 확고히 해주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는 5일 대변인 기자단 브리핑도 생략했다. 그만큼 청와대 분위기는 어둡다. 현재 분위기라면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국회의원 200명)를 무난히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6일 탄핵을 앞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4월 퇴진 의사를 밝힐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친박(친박근혜) 일각에선 비주류 내 온건파들을 돌려세울 수 있고, 탄핵 가결에 동참하는 여당 이탈표가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즉각 하야' 아니면 '버티기' 뿐인 상황에서 '4월 퇴진'을 약속, 탄핵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버티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4월 퇴진' 약속으로 현재 판결도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 이 같은 선택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권한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국정동력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다 현재 구성이 보수적이라는 점 등에서 반전을 노릴 수 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현재에서 인용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즉각 하야' 아니면 탄핵을 요구하는 성난 촛불 민심 앞에서 대통령의 2선 후퇴 의지 표명은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권 비주류가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정치생명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선택, 즉 하야 선언을 해주기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4명 임명

검사 출신 3명 판사 출신 1명...파견검사 10명도 확정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로 박충근(60·담양·사법연수원 17기)·이용복(55·18기)·양재식(51·21기)·이규철(52·22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보 4명 가운데 이규철 변호사(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역임)만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 3명은 검사 출신이다.

박충근 특검보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이용복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역임했다. 특검보 가운데 가장 선배 격인 박충근 특검보는 박영수 특검이 서울지검 강력부장 시절에 강력부 검사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검사 시절 부산지검 강력부장, 수원지검 강력부장 및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지낸 '강력부'이다.

그는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 파견된 뒤에는 시찰에 특검을 경험했고 1997년에는 탈옥수 신상원 검거를 위한 초기 수사를 맡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덕수상고 졸업 후 한국은행에서 일하다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활동했으며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변신했다.

박영수 특검보와 같은 범법범인 강남에서 근무하는 양재식 변호사는 이용복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들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이외함께 박영수 특검은 수사팀장으로 지명된 윤석열(56·23기) 대전고검 검사를 비롯해 1차 파견검사 10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부장검사로는 한동훈(43·사법연수원 27기)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신자용(44·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43·29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파견됐다.

부부부장검사로는 고형근(46·31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과 김창진(41·31기) 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이 낙점받았다.

평검사에서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인 수사를 함께한 이복현(44·32기) 춘천지검 검사가 눈에 띈다. 법무부 검찰과를 거친 박주성(38·32기) 서울서부지검 검사,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원인 김영철(43·33기) 부산지검 검사, 여러 검찰청에서 특수수사 경력이 풍부한 문지석(39·36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등도 특검에 합류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늦어도 6일 완료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탄핵 표결 9일

국회 개방해 달라

野 요청... 정세균 의장 "검토"

야권은 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는 오는 9일 국회를 시민에게 전면 개방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8~9일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찾아올텐데, 시민들의 국회 방문이(국회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위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해 국회 잔디밭 개방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개방되는 곳이지만, 그런 제한이 있다면 검토해볼만 하다"며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김중훈 윤종호 의원이 의정과의 면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HNT 하나 Pack

무안출발 추천 겨울여행!
다낭 · 캄보디아

문의: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 062)228-1199

캐주얼 ARPF01
초특가 필살기
앙코르왓 4일, 5일
6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1일 ~ 1월 14일 매주 수/토
스카이앙코르항공 (ZA항공)
특식4회(샤브샤브, 김치찌, 버섯김치전골, 쌈밥정식)

캐주얼 AVPF13
[4성급 호텔] 투본강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8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0일 ~ 1월 17일 (출발일 상이)
비엠펙항공 (VJ항공)
호이안 투본강 투어(\$30상당), 스페바구니(\$10상당) 포함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기금기부,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하여야 한다. ■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신청은 당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시장] 여행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편함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참수 권고 ●여행 금지